

■ 연구원 소식

○ 제 52차 시민문화강좌 개최 (10월 26일)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들로 산으로 떠나는 대신 강의실에서 가을의 심장과 마주한 분들을 모시고 지난 토요일 오후 열린 연구원 52차 문화강좌는 "기억의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가 100년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단절적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바른 내일을 향해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데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용, 최대교, 배정자, 이두황, 서정주, 이항녕, 임종국... 길게는 반세기 짧게는 한두 해 차이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지나 온 사람들의 흔적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전북을 흔히 "법조 3성"의 고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창 출신의 가인 김병로, 김제에서 태어난 바오로 김홍섭, 그리고 익산 출신의 화강 최대교가 주인공입니다. 김병로와 김홍섭은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최대교는 조선총독부 검사로 일했습니다. 세 사람을 법조 3성이라는 같은 줄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들의 삶과 흔적을 명료하게 기억해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닐까요?

좋은 시간 나눠주신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님과 가을 주말을 "기억"을 위해 함께 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 문화강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2차 문화강좌 이모저모



미국 아칸소주 출신 맥아더 장군(1)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에 있는 맥아더 박물관, 이곳에서 맥아더가 태어났다.

한국 사람으로 맥아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그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어릴 적부터 한국 전쟁 당시 맥아더의 군사 작전으로 북한군을 몰아내었다는 사실을 익히 들은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 대 각성 운동 현장을 찾아가는 중에 아칸소를 들르게 되었다.

아칸소 리틀록에는 전주여고 출신 정 나오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연락이 되어 방문하게 되었다. 정 나오미 목사는 필자가 기독교역사를 전공하였다는 말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다. 정목사는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미국인 교회에서 정식 감리교 목사로 시무하는 재원이다. 그녀는 목회하는 와중에 미국사회에서의 국제 결혼한 한국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몰두(沒頭)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를 정리하고픈 열망이 있다.

초면이었지만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물론 숙소도 제공 받았으며, 다음 날 맥아더 장군 생가를 찾았다. 그의 생가는 지금은 맥아더 공원이 된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2층으로 된 붉은색 건물은 언뜻 보기에 맥아더가 미국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아서 맥아더 2세는 육군 중장이었는데, 훈련할 때 사병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 걷는 등 모범적인 군인으로 이름나 있었다.



맥아더 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맥아더 흉상과 생가 그림

아버지의 이러한 정신은 당연히 맥아더에게 교육되어 그의 삶을 이끌었다. 맥아더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웨스트포인트 시절 학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목격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편에 서서 폭행자를 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거짓말 하는 것을 보면 핀잔하거나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일을 하면서 감수해야 것으로 생각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세상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모함하려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짐작된다. 후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해임되기도 한 사건도 정의로운 소신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일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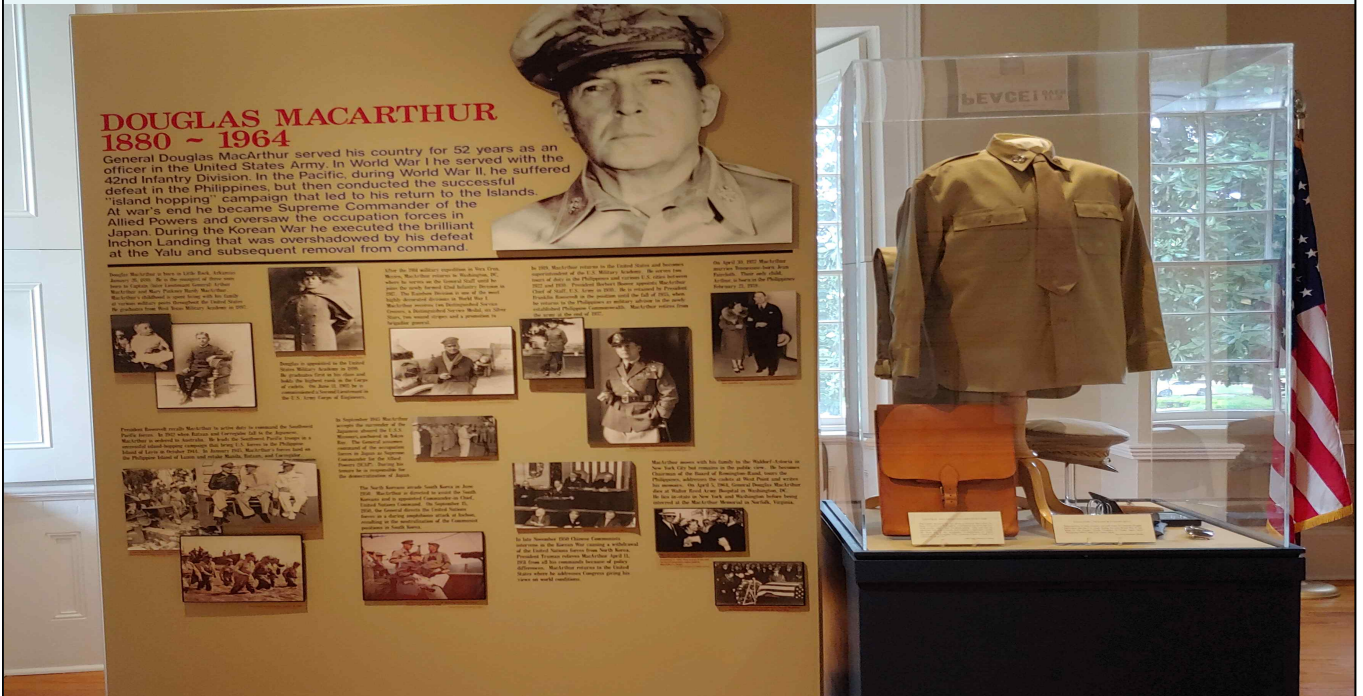


맥아더가 즐겨 쓴 선글라스, 육군 원수 계급장, 그리고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담배 파이프



맥아더가 타고 다니던 지휘관용 쥘차

아무튼 그렇다하더라도 맥아더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약력에는 최연소 사단장, 2차 대전 연합군사령관 1945-1946년 까지 최초의 외국인 집정관 등 화려하다. 또한 그의 최종 계급은 육군원수(쉽게 말해 별 다섯 개)였으며, 그가 받은 훈장은 육군 수훈 복무 훈장, 해군 수훈 복무 훈장, 은성 훈장 등 남들은 하나도 받기 어려운 훈장을 8개나 받았다.



또 다른 방에 전시된 그의 군복과 사진들

전시실 각 방마다. 맥아더의 유품들로 가득하다. 사진에서 익히 본 바 있는 썬글라스, 담배 파이프, 원수 계급장 별 다섯 개, 그가 타던 군용 Jeep, 그의 군복 등 맥아더의 체취가 느껴진다.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그의 생가 규모로 보아 맥아더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편집자 주: 맥아더 이야기 2부는 2주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도리화가”의 로맨티스트 태어나다(1812년 11월 6일)

전북 김제 만경 화포리 출신의 정노식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내내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며 사회주의 노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해방 후에는 월북해 북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그는 1940년 <조선창극사>를 집필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판소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88명의 소리꾼의 생애를 활자화함으로 우리 현대사에 판소리를 민족예술로 승화시키고 광대라 불리던 이들이 예술가로 평가될 수 있게 복원했다.

그의 역작 <조선창극사>에서는 동리 신재효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재효(申在孝)는 전북 고창 사람으로 이름은 재효, 자는 백원(百源)이며 순조 12년(1812~1884)생이다. 일찍이 한학에 뜻을 두고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어를 무불통섭하였다.

성질이 소박한 유가출신으로 평상시에도 의관을 갖추고 행실이 점잖아 학자로서의 조행이 마을의 사범의 되었다. 음률·가곡·창악·속요에도 정통하여 그 조예의 현묘함이 불가사의의 영역에 달하였다. 당시에 있어서 어떠한 창악인이라 할지라도 신재효의 지침과 척도를 거치지 않고는 명창의 반열에 끼지 못할 정도였으니, 국창으로 일세를 떨쳤던 이날치, 박만순, 김세종, 정창업, 김창록 등과, 여류 명창의 비조 진채선, 허금파 들도 다 신재효의 문색을 거쳐서 친자한 사람들이다.

.....

당시에 재하여 여하한 극창가라도 그 지침과 척도를 경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명창의 반열에 허참을 부득하였으니, 저 국창으로 명을 일세에 광박한 이날치, 만순, 김세종, 정창업, 김창록, 여류 극창가의 채선, 허금파등은 다 그 문장에 열하여 치자한 자이다. 조선조 고종 연간 대원군 집정시에 그 성명이 입문되매, 특히 오위장의 직계를 수하니 그 예술문화에 공헌을 표상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사계에 재하여 고창 신오위장이라면 향아가동이라도 모르는 자-없기에 지한다.

“정노식 <조선창극사 신재효> 편 中”

정노식의 평가대로 신재효는 판소리의 후원자이며 지도자였고 이론가이자 평론가였으며 또한 수많은 단가와 잡가의 창작자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전라북도 고창의 아전 출신이었던 그는 사재를 털어 수많은 소리꾼들을 후원하고 가르치면서 구전되어 오던 판소리 열두 마당 중에 여섯 마당의 체계를 잡아 작품화했으며, 광대가 갖추어야 할 법례를 마련함으로써 판소리를 광대들의 기예가 아닌 예술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 결과 신재효는 “어전 광대가 되려면 신재효의 문하를 거쳐 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명창들의 스승이 되었고 그가 살았던 고창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성지가 되었다. 특히 그는 남성들의 독무대였던 소리판에 진채선이라는 여성 명창을 등장시켰다. 정노식은 조선창극사에서 진채선의 소리에 대해 “성음(聲音)이 웅장한 것과 기량이 단단한 것은 당시 명창 광대로 하여금 안색이 없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고종 4년(1867년) 경북궁 경회루의 낙성연을 통해 수십 명의 남성 명창 가운데 홍일점으로 참가한 진채선은 고종과 흥선대원군을 비롯해 수많은 군중이 자리를 메운 자리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입고 명성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 35년의 세월을 건너 제자 진채선과 연정을 나누었던 신재효는 흥선대원군의 첩실이 되어 운현궁에 머무르게 되자 <도리화가>라는 단가를 통해 연정을 전하게 되었다.

스물 네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돌아오니
귀경가세 귀경가세 도리화 귀경가세
도화는 곱게 붉고 힘도 힘사 오얏꽃이
꽃 가운데 꽃이 피니 그 꽃이 무슨 꽃고.
웃음 웃고 말을 하니 수렴궁의 헤어환가
헤어화 거동 보소 아리답고 고을시고
찬란하고 황홀하니 채색채자 분명하다
도세장연 기이한일 신선선자 그 아닌가

신재효 작 <도리화가>

당시 신재효의 나이 59세, 진채선의 나이 24세였다. '도리화'란 '붉은 복숭아꽃과 흰 오얏꽃'이니 붉은 복숭아꽃은 젊고 활기찬 진채선을, 흰 오얏꽃은 늙어버린 신재효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으므로 언뜻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지만 예인들의 분방한 세계에서는 가능했을까도 모르겠다.

1876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신재효는 가산을 풀어 빈민들을 보살폈다. 그러자 2년 뒤인 1878년(고종 15년) 조정에서는 신재효에게 오위장(五衛將)이라는 무관직을 하사했다. 오위장은 중앙군인 오위의 최고 책임자인 종2품 무관직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오위를 혁파하면서 정3품으로 격하시켜 이름만 남겨둔 명예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으로서 종종 궁궐에 입직하는 벼슬이었으니 일개 호장 출신의 판소리 선생에게는 실로 파격적인 영예였다.

신재효는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던 제자 진채선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고향 고창에서 민인들과 벗하며 여생을 보내다 1884년,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태어난 날과 같은 날 숨을 놓았다.



스승 신재효



제자 진채선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계룡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계룡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선지자들이 오고 간 성스런 산이다. 그 깊은 꿈이 언제나 실현되려는가?

계룡산鷄龍山은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이다. 이름에서 '닭 계鷄'와 '용 룡龍'자가 의미하는 대로, 계룡산은 닭의 벼슬을 머리에 인 용의 웅장한 모습을 지녔다. 이름처럼 생긴 전모가 궁금할 때에는 계룡산의 서쪽 사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논산시의 상월면이나 건너편인 노성면 쪽으로 가야 한다. 서기 어린 계룡산을 실감할 수 있는 조망이 그곳에서 기다린다.

예로부터 계룡산은 우리 민족이 성스럽게 여긴 산으로, 금남정맥 끝자락에 즈음한다. 금남정맥은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인 주화산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다. 이 줄기가 운장산과 대둔산을 거쳐 공주의 금강에 가까워지면, 잠시 주춤거리다가 거대한 몸집을 한껏 부풀려 계룡산을 빛낸다. 그리고 부여의 부소산에 이르러 마침내 걸음을 멈춘다.

계룡산의 최고봉은 '천황봉'이다. 사실 우리나라 명산 가운데 천황봉 또는 '천왕봉'이란 아주 큰 이름의 봉우리를 품은 산으로 지리산, 태백산, 속리산, 월출산 등이 따로 꼽힌다. 하늘나라를 주관하는 상제께서 거쳐하신다는 선계의 기운이 감도는 신령한 최고봉이 바로 천황봉이요, 천왕봉이다.

논산과 공주를 잇는 1번 국도 중간에 계룡면이 소재한다. 이곳을 통해서도 계룡산의 명찰 갑사甲寺와 신원사新元寺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초입에서 계룡산을 향해 조금만 들어오면 '초포草浦'라고 부르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곳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다.

“무너미로 물이 넘어가고, 계룡산의 돌들이 하얘지고, 초포에 배가 들어오면 구세성인救世聖人께서 낚서 새 세상을 여신다.”

무너미는 초포를 지나 갑사저수지로 들어오다가 만나는 고개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무너미로 물이 넘으니, 70년대에 조성한 갑사저수지의 물이 농업용수가 되어 계룡과 상월의 들녘을 적신다. 계룡산 천황봉이나 연천봉, 문필봉, 삼불봉 꼭대기의 바윗돌들도 하얘지는 속도가 80년대 이후로 무척 빨라졌다.

이제 초포에 물이 넉넉히 불어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언은 실현되리라. 그런데 사실 이곳의 물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기는 늘었다. 금강 하구에 군장댐이 들어서고, 논산에서 흘러드는 샛강과 금강 본류가 하나 되는 강경의 옥녀봉 아래쪽으로도 댐이 들어섰다. 그리고 나서부터 수량이 제법 늘어났으니, 이 물이 더 불어나 초포로 배가 들어올 날은 크게 멀지 않으리라.

다음 주는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두 번째 이야기 “신원사와 종약단”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